

나는 어떻게 '이론'을 멈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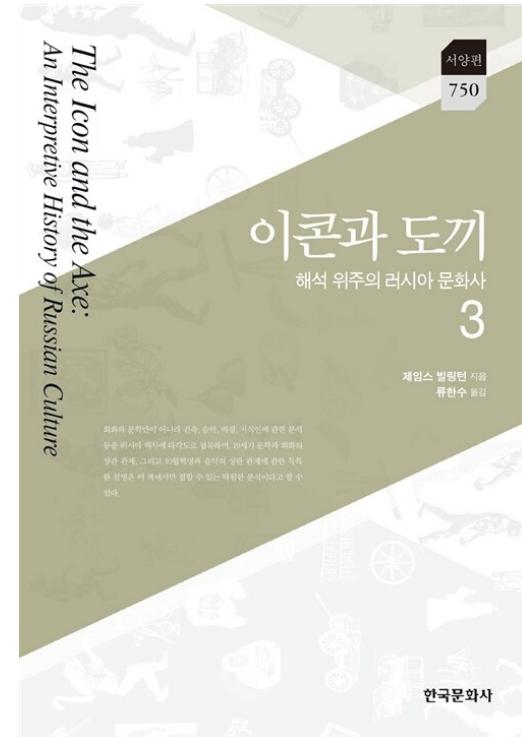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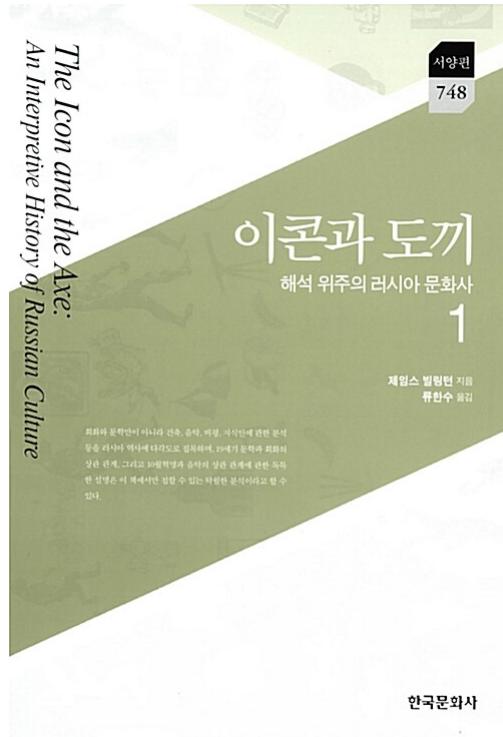
'소비에트'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나

김수환 (한국외대)

# I. 들어가며: 우연한 만남

# <이콘과 도끼 The Icon and the Axe>

## (제임스 빌링턴, 1966/2015)



역사가는 과거를 연구하면 어떻게든 사람들이 현재를 깊이 이해할지, 심지어 어쩌면 미래의 가능태에 관한 단서의 파편이라도 얻을지 모른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러시아 문화의 역사는 그 자체를 위해 말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자기가 느끼기에 죽은 문화인 서방 문화에 다가선 다음과 같은 방식이 그것이다.

•나는 내가 가는 곳이 그저 묘지라는 걸 알아. 하지만 가장, 가장 소중한 묘지야! (.....) 거기에는 소중한 망자들이 누워 있으며, 그들 위에 놓인 비석 하나하나가 다 내가 (.....) 땅에 엎어져 이 비석에 입을 맞추고 그 위에서 울어버릴 만큼 지난 치열한 삶에, 그리고 그 삶의 위업, 그 삶의 진실, 그 삶의 투쟁, 그 삶의 지식에 관한 열렬한 믿음을 알려주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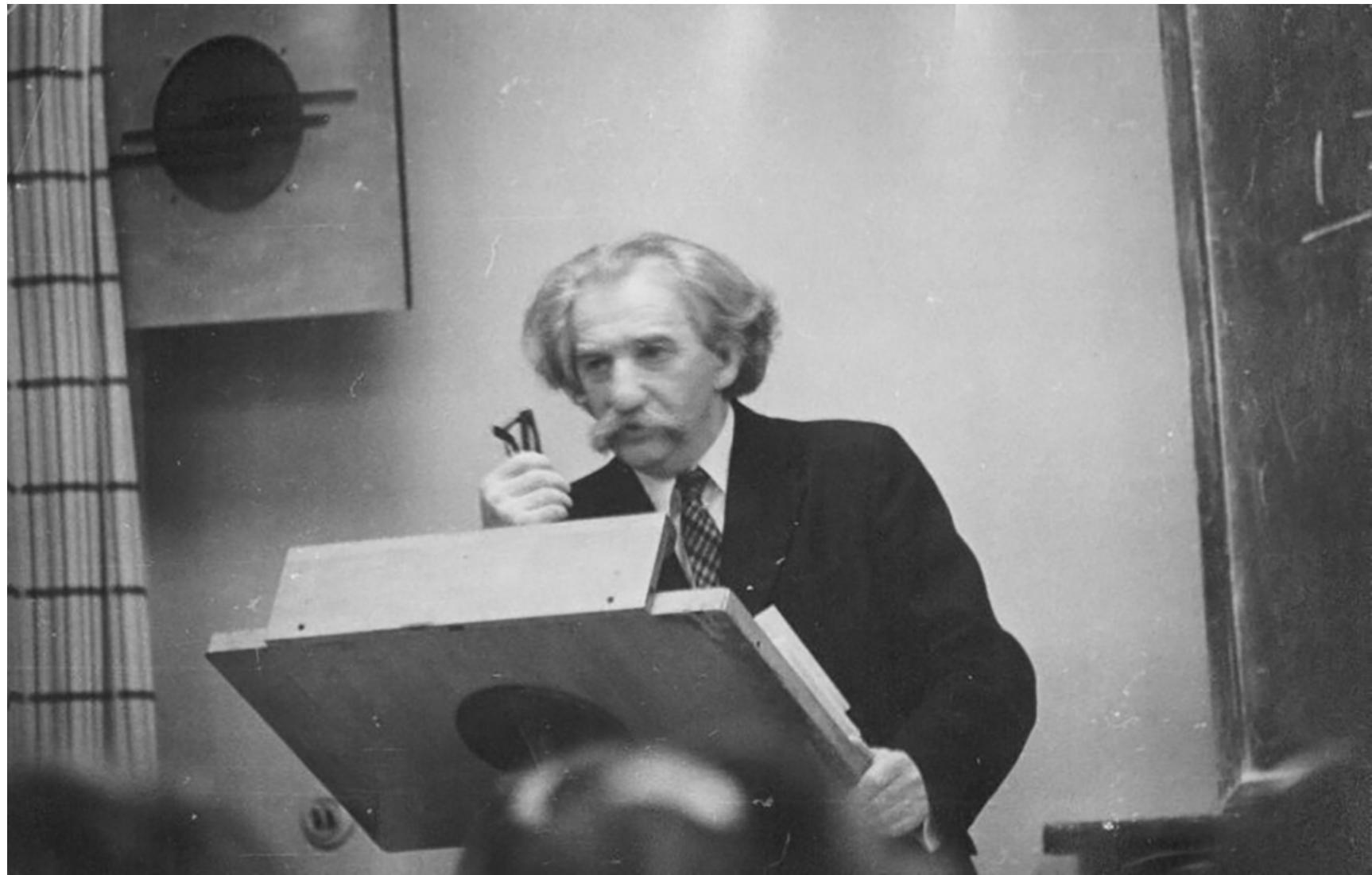
•나는 유럽에 다녀올 생각이야, 알료샤. 여기서 곧장 출발할 거다. 내가 가는 곳이 묘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건 그래도 가장, 가장 소중한 묘지야. 그게 중요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거기 잠들어 있고, 그들 위에서 있는 묘비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토록 뜨거운 열기 속에 지나간 삶을, 자신의 위업, 자신의 진리, 자신의 투쟁, 자신의 학문에 대한 그토록 열정적인 믿음을 말해주거든.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어. 이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저 묘비에 불과하여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온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겠지. 내가 우는 것은 절망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흘린 눈물로 행복감에 젖어서 일거야. 자신의 감동에 흠뻑 도취되는 거지. 여기엔 지성도 논리도 상관없어. 이건 오장육부로, 배 속으로 사랑하는거야, 자신의 최초의 젊은 힘을 사랑하는 거지..... 내 넋두리를 좀 알아듣겠니, 알료샤,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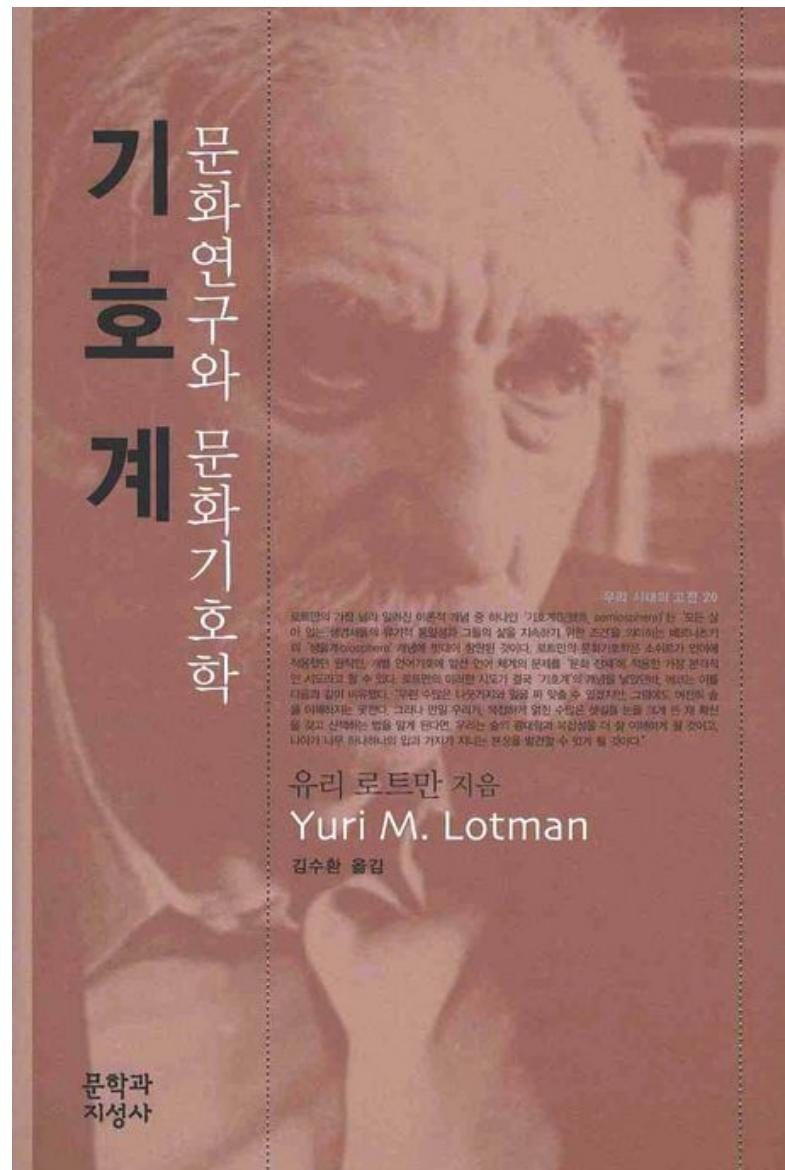
표도로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1>, 문학동네, 464-465쪽

“형의 일도 이미 절반은 이루어졌어요. 이반 형, 절반은 성취된 거예요, 형은 삶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제 나머지 절반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형은 구원받는 거예요”

“넌 벌써 구원하려 드는구나. 하지만 난 아직 파멸하지 않았는지도 몰라! 어쨌든 네 그 나머지 절반이란게 뭔데?”

“그건 형의 그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 은 전혀 죽지 않았는지도 모르지만요. 이제 차나 좀 줘요.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니 참 좋네요. 이반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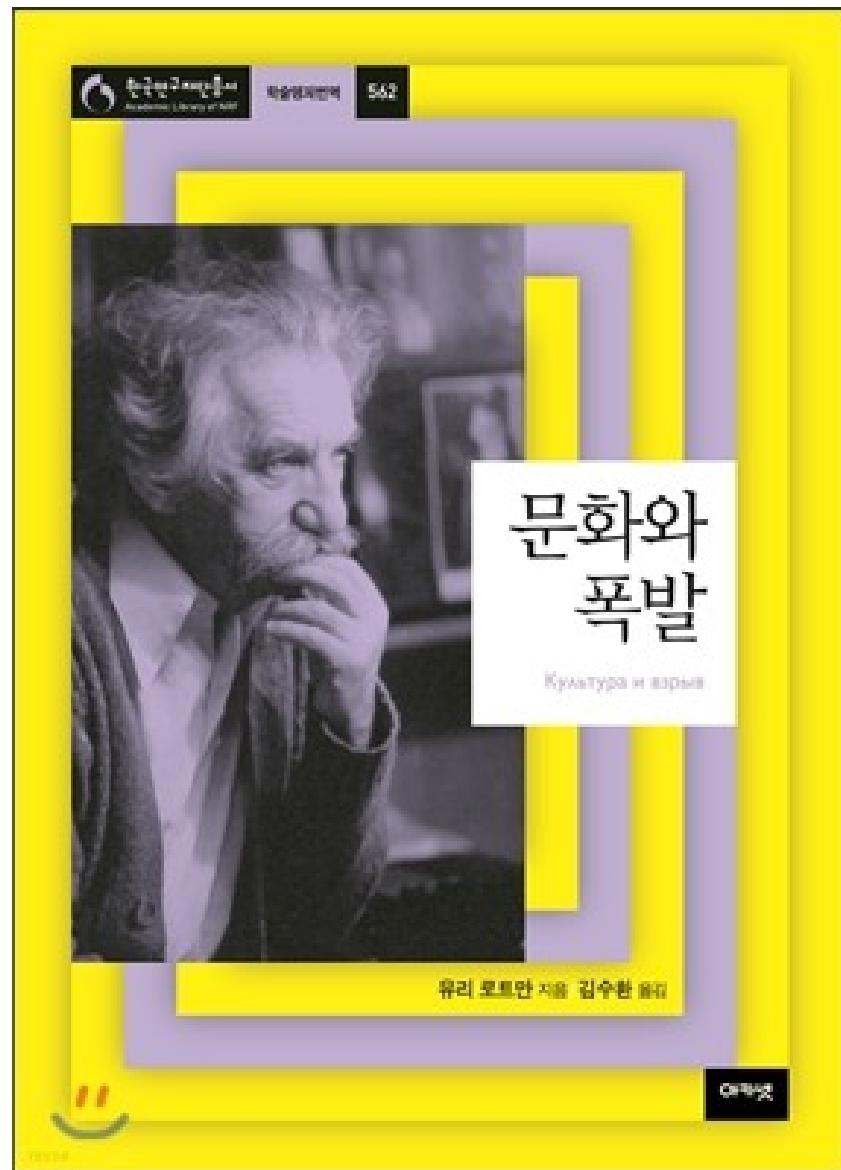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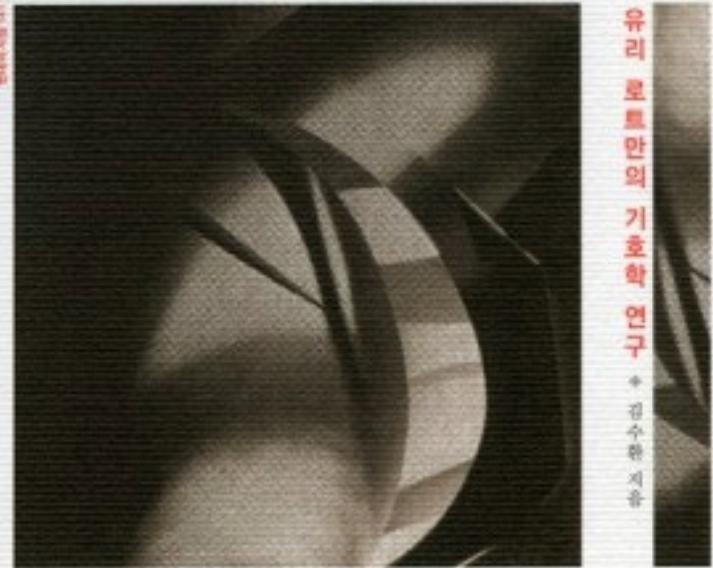
로트만의 가설, 남아 말하던 이론적 개념 중 하나인 '기호계집권체, semiosphere'는 '모든 살아 있는 생물체들이 유기적 통일성을 그들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을 위하여는 베트나스기의 '생생계cosphere'로 개념에 차이가 있으면된 것이다. 로트만의 문화기호학은 소수집단이 인류에 적용되는 원칙은, 개인 간에서 기호에 핵심 언어 체계의 원리를 '문화' 자체에 적용한 가장 본디적 인 시도였음을 알 수 있다. 로트만의 이러한 시도가 결국 '기호계'의 개념을 낳았으나, 예전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우린 수많은 나뭇가지와 잎을 떠 옮길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어떤 한 솔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솔에서 열린 수많은 창문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솔을 찾고 신체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숲의 경대체와 국립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 대체의 입과 자판은 본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리 로트만 지음  
Yuri M. Lotman

김수환 옮김



# 사유하는 구조



문학과  
자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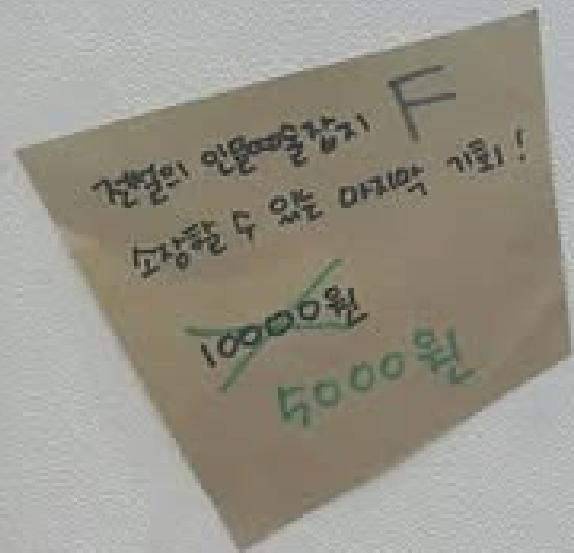


## 책에 따라 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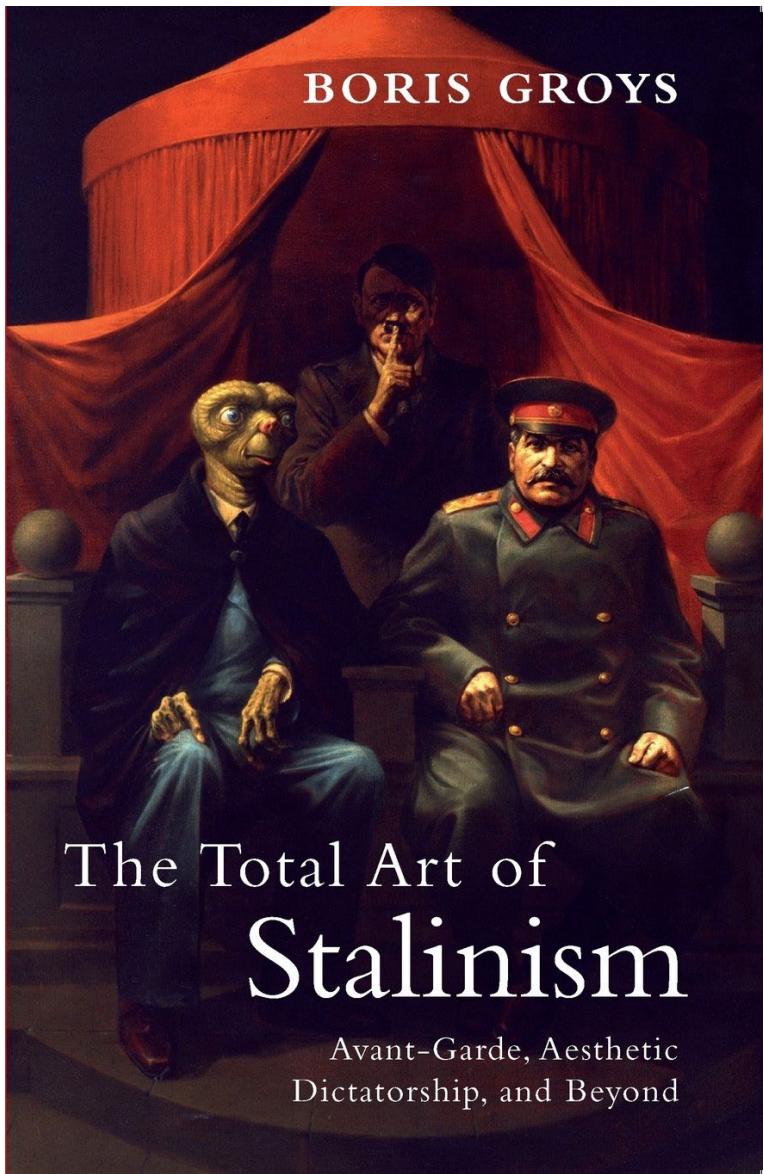
는데 고고학과 서사학 분야

김수환 저음

문학과자성사







자칫 헛소리(bull shit)로 들릴만한 도발적인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행동과 사유의 “구멍마개(stopgap)”를 드러내려는 전략은, 알다시피 지젝의 장기다. 여기서 구멍마개란 “우리를 사유의 의무에서 면제시키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아예 생각이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틀어막아 버리는” 모종의 장벽을 가리킨다. 이 구멍마개를 둘러싼 “사유금지조치 *Denkverbot*”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는데, 이 싸움의 가장 좋은 방법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그 ‘금지된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사유가 금지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바로 그 ‘금지된 사유’를 감행해야만 한다. 오늘날 가장 강력하게 금지된 사유의 영역은 무엇일까? 마르크스가 월스트리트에서 사랑받고, 레닌이 여기저기서 재장전(reloaded)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입에 올리는 것이 암묵적으로 금지된 기표가 존재한다면? 스탈린이라는 기표는 그렇게 자신의 역사적 좌표계를 초과하게 된다.

# 영화와 의미의 탐 구

1

언어 — 신체 — 사건

미파밀 앤더슨스키 지음  
김수환·이현우·최선 옮김



나남

# 영화와 의미의 탐 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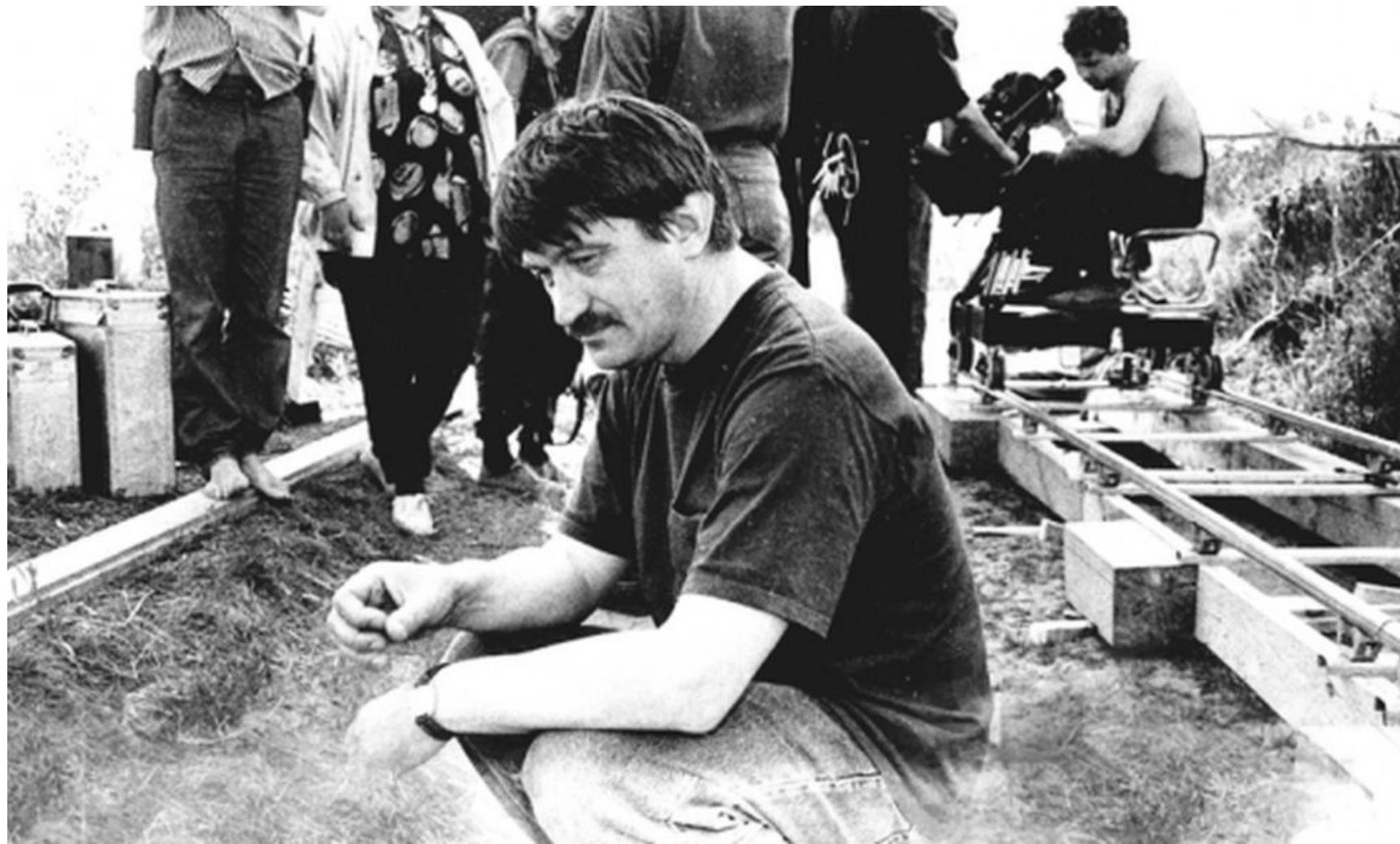
언어 — 신체 —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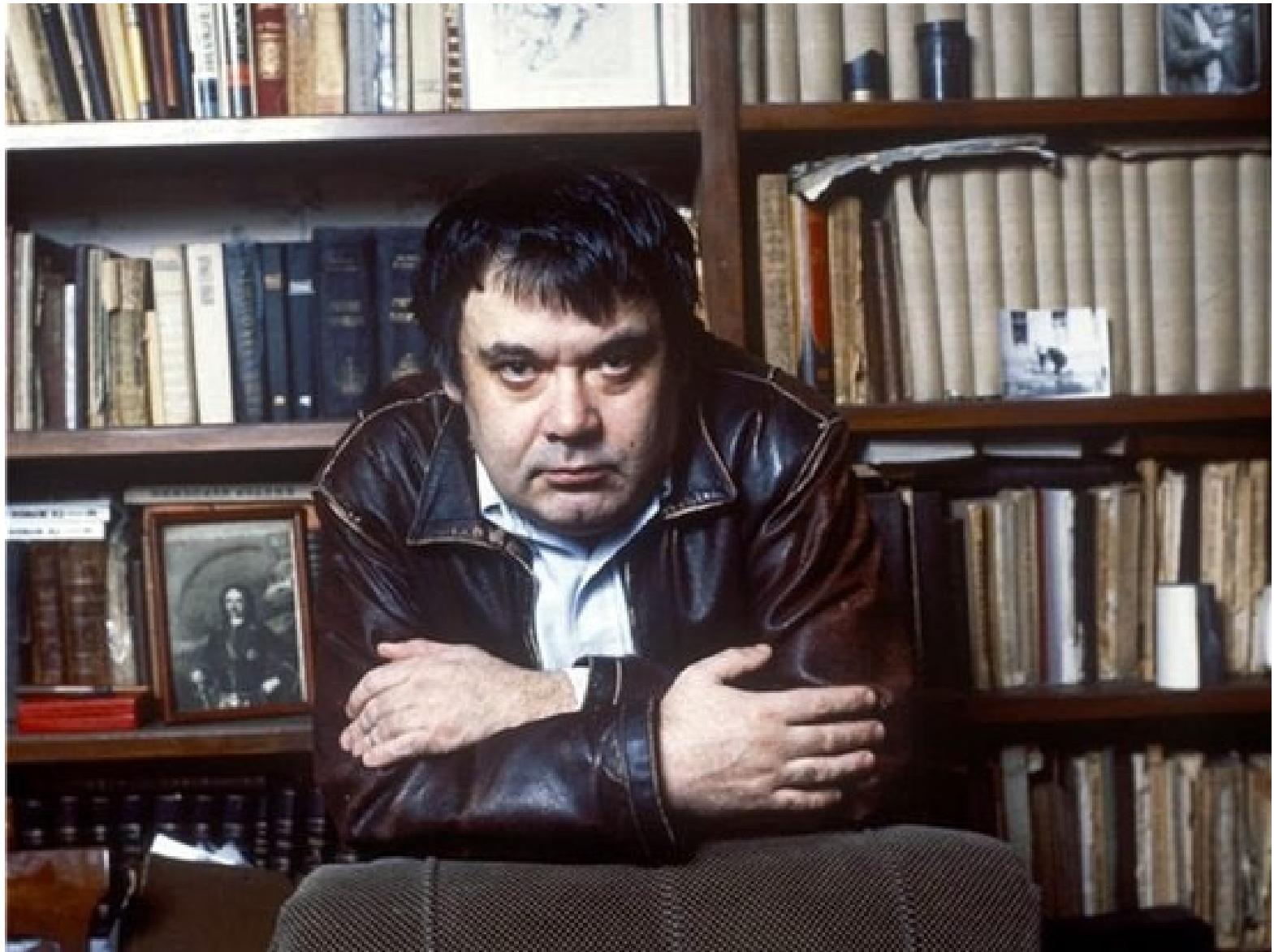
미파밀 앤더슨스키 지음  
김수환·이현우·최선 옮김



나남

그런데 사실 번역자로서 그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이 책의 특별한 장점은 따로 있다. 암폴스키는 1980년대 이후 소비에트 영화계를 수놓았던 트로이카 감독 3인의 영화 세계를 그 누구보다 먼저 깊게 이해하고, 그에 관해 적극적으로 발언해왔던 장본인이다. 그간 이러저런 경로로 국내에 꽤 알려졌다고 할 수 있는 소쿠로프를 뺀 나머지 두 명의 감독, 알렉세이 게르만과 키라 무라토바는 그들의 예술적 성취와 국제적 명성에 비해 거의 알려지지 못한 것과 다름없는 실정이다. 암폴스키의 이 책은 이들 세 감독의 영화세계에 관한 날카로운 분석과 비평적 해석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기회에 해당한다. 이 정도의 밀도와 수준을 갖고 20세기 후반기 소비에트 영화세계를 논한 텍스트는 – 적어도 내가 아는 한 –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암폴스키의 이 책이 유일하다.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

알렉세이 유르착  
김수환 옮김

## 차례

- |     |  |
|-----|--|
| 7   | 1 후기 사회주의: 영원한 제국                        |
| 75  | 2 형식의 해게모니: 스탈린의 섬뜩한 패러디                 |
| 149 | 3 뒤집힌 이데올로기: 윤리학과 시학                     |
| 239 | 4 '브네'에서 살기: 탈영토화된 사회적 환경                |
| 301 | 5 상상의 서구: 후기 사회주의의 저편                    |
| 387 | 6 공산주의의 진짜 색깔들<br>: 킹 크림슨, 딥 퍼플, 핑크 플로이드 |
| 443 | 7 데드 아이러니<br>: 네クロ미학, 스투프, 그리고 아녜도트      |
|     |  |
| 525 | 결론                                       |
| 551 | 참고문헌                                     |
| 599 | 찾아보기                                     |
| 613 | 옮긴이의 글                                   |

“좋은 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하는 책, 혹은 알았다 하더라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세계를 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이 첫 번째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해 다시 생각해보도록 만드는 책이 두 번째다.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얇은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책, 기존의 이해 전체를 근본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도록 촉구하는 책이 존재한다. 소비에트 후기 사회주의에 관한 유르착의 저작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드문’ 경우였다. 부디 이 책에서 촉발된 관심과 의문이 더 많은 질문과 성찰을 낳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News from Ideological Antiquity:  
Marx-Eisenstein-Capital

# 〈자본〉에 대한 노트

1927~1928 Lecture  
Notes on Capital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  
알렉산더 클루게



김수환  
유운성 옮김

문학과지성사

시	
황동규	오늘 하루만이라도 와 1편
최두식	개개비 와 1편
김소연	생고르밀에 대하여 와 1편
이번률	글씨들 와 1편
신용주	밤은 필요하다 와 1편
이민하	우울과 경청 와 1편
하재연	앙양 와 1편
박상수	일요일의 낮잠 와 1편
구한우	악안 와 1편
소설	
김종숙	농담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
김수준	한 봄의 빛
김선희	기까운 일들
리뷰	
김나영	기다리지 않고 여울지 않는 시간
이철주	풀이될 수 없으므로, 풀이될 수 없음으로
조대현	나, 사라지거나 혹은 증식하거나
김녕	소설이 되는 방법, 소설이 아닐 것
이학열	암울천지의 시대, 인간의 길을 묻다
인아영	여성 청년들의 민족지 혹은 생존기
전기화	더 예전하게
	에타 비평
장은정	현장-스코어-비평
지성	
보리스 그로이스	러시아 코스미즘
김수환	러시아 코스미즘 재방문
제15회 미애송문학상 발표	
주미경	마술먹자

125  
2019년 봄

# 마 학 과 수 학

## 보리스 그로이스

### 러시아 코스미즘 —불멸의 생명정치—

러시아 코스미즘은 통일된 가르침이 아니다. 이기서 말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인류의 저자들인데, 그들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 사후 세계의 실재성에 대한 믿음과 함께 무너져버린 이후, 이제 눈에 보이는 우주안에 인간의 삶을 위한 유일한 장소라는 입장에 이를 사람들이었다. 이 말은, 정확하게는 이 삶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도출할 수 있다. 당시 널리 퍼진 견해 가운데 하나는 개인적 복음과 세계의 운명에 관한 시유들을 거부하는 방식이다. 즉, 인간이 지구상에서 시간상으로 계한한 유한한 삶을 살다니는 것. 그리고 그런 삶에 따른 세속적인 근심거리를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러시아 코스미즘의 이론가들은 “신의 죽음”으로부터 이와는 반대되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들은 인류로 하여금 우주를 대상으로 한 충돌적인 권리와 수립할 것, 그리고 현재 살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살았다면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 불멸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은 종종 윤리학적 세계 정부이다. 러시아 코스미즘은 단지 이론적 담론이 아니라 정치적 프로그램이다. 비록 두려움과 전통적 유형의 군주 국가가 기능하는 방식과 대조하면서 현대 국가의 기능 원칙을 정의한 유망한 구현이 있다. 국가가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둔다”던 근대 국가는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둔다”3 현대 국가는 인구의 출생, 경강, 삶의 활동의 제강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요컨대, 두려움에 따른 현

1. [중국] Борис Гројс(보리스 그로이스), “Русский космизм: библиография(러시아 코스미즘: 불멸의 생명정치)”, *Русский космизм: Актуология(러시아 코스미즘: 현실성)*, Москва: Альфа-Пресс(모스크바: 알파프레스), 2015, pp. 6-29. 이 글의 저작권은 그로이스 본인에게 있으며, 옮긴이가 직접 저자에게 저작권 익명을 구해온 바 있다.

2. Michel Foucault,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5-1976*, trans. David Macey, New York: Picador, 2003, p. 241 아래.

대국가는 무엇보다도 “생명권력”으로서 기능한다. 그 존재의 정당성을 그것이 인간 대중의 생존, 즉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인간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인구의 생존이 국가의 목적인 반면에, 개별 인간의 ‘자연적인’ 죽음은 불가피한 사건으로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즉, 자연적인 죽음은 생명권력이 국가의 자연스러운 한계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현대 국가는 자연적인 죽음의 사적 영역을 존중하면서 이 한계를 받아들인다. 사식 주로 자신도 이 한계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생명권력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극단화해서 자신의 모토를 다음과 같이 청정한다면 어떻겠는가. “살게 만들면서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다르게 말해서, 만일 그것이 ‘자연적인’ 죽음에 서서기로 설정한다면 어떨까? 그와 같은 결정은 유토피아적이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와 같은 절대적인 생명권력을 향한 요구를, 10월 혁명 전후의 많은 러시아 사람에게 내놓았던 것이다. 모든 인간의 개인적인 불멸이 사회 전체, 국가 정치의 복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용호자들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바르크로스주의의 이탈리언 치아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 바르크로스주의 사회적 요구와 달리, 불멸의 생명정치를 향한 요구는 순전히 러시아의 기원에서 발상했다. 니콜라이 표도로프<sup>4</sup>의 저작이 그것이다.

표도로프가 19세기 후반에 작성한 *공통 과제의 철학*(*Philosophia Praktica del'Obichnoy of the Common Task*)은 “나가 살아 있음 때까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잘 알려진 독자들 가운데에는 레프 톨스토이, 표도로 도스토옙스키, 블라디미르 슬로비얀코 등이 있다. 비록 러시아 노동자에게 한정된 것이긴 했지만 1903년 표도로프가 사망한 후 그의 이름의 인기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 근본적으로 공통 과제의 기획이란 언젠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을—기술적 수단을 통해—피난처를 찾는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표도로프는 영혼의 본면을 믿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수동적으로 기다린 줄이는 되어 있지 않았다. 다소 고대적인 언어에도 불구하고 표도로프는 칠두절

3. [출판기] 니콜라이 표도로비치 표도로프(Nikolai Polovnich Fedorov, 1829-1903). 이시아 정교 불러자, 러시아 코스미즘의 창시자, 도서를 사는 어떤 사람에게서 사서에서 수백만 후 소스 그대로 이주하면서, 지금 어느 도서관에 서서로, 이주하면서 번역하고 번역을 한 다음 그걸 그걸 편집하고 글을 엮었다. 책의 후에는 외무부 장관 브로크바(아카이브)도 서서에서 염려면서 “공통 과제의 철학” 수필에 표주관다. 생활에 절묘한 최소한의 것들을 소유하는 국민으로 심신 한 생명으로 유명했는데, 삶을 잊은 벌써 저자 이론으로 출판을 하지 않았다(“공통 과제의 철학”, 표도로프 대 부분의 저작은 사실상 출판된다). 1920년대에는, 작가 고모기, 블라디미르, 레프(페트로비치) 등이 그의 사상을 위해 깊게 관여했다. 러시아 철학자 미친 그의 공헌은, 1970-80년대기 러시아 사회를 조망되었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19.4.27.-7.21.

IN  
Y

MMCA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모두를 위한  
영원한

영원한  
IMMORTALITY  
FOR ALL

:언론 비도록  
Anton Vidokle  
모두를 위한

영원한  
IMMORTALITY  
FOR ALL



MMCA

FUR ALL

언론 비도록

ANTON VIDOKLE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9.4.27.-7.2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차례

서문

7

### 1부

들어가는 말, 『모스크바 일기』, 어떤 혁명의 기록	17
1장. 장난감 마니아 밸터 벤야민: 혁명의 시간성에 관하여	23
2장. 혁명적 언극이란 무엇인가: 메이예르홀트와 브레히트 사이에서	58
3장. 혁명 이후의 문학: 생산자로서의 작가	99
4장. 영화(적인 것)의 기원으로서의 모스크바: 촉각성에서 신경감응까지	170

### 2부

5장.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사물론과 히토 슈타이얼의 이미지론: 트레티야코프와 아르바토프를 중심으로	223
6장. 러시아 우주론 재방문: 시간성의 윤리학 혹은 미래의 처방전 [부록] 안톤 비도클·김수환 대담: 뮤지엄, 그 믿기지 않는 이상함에 관하여	259
7장. 아방가르드 뮤지올로지: 폐허에서 건져 올린 다섯 개의 장면들	281
원문 출처	309
찾아보기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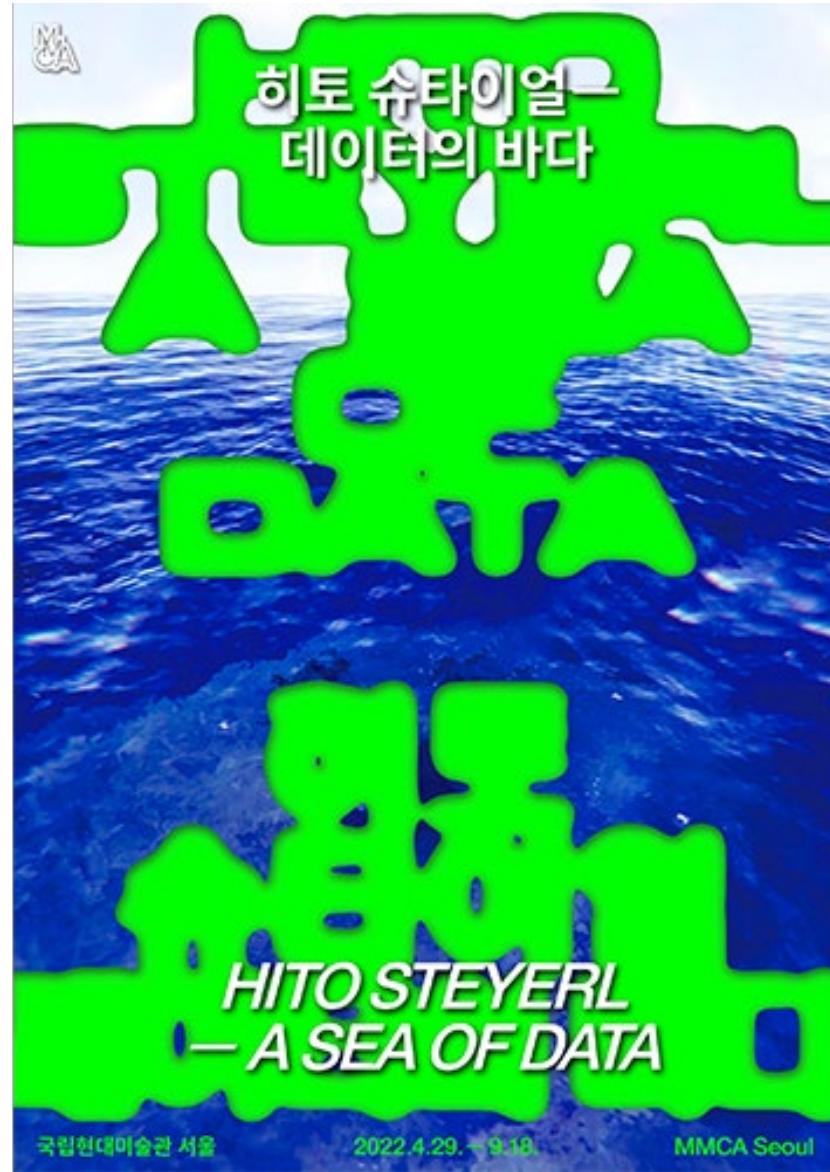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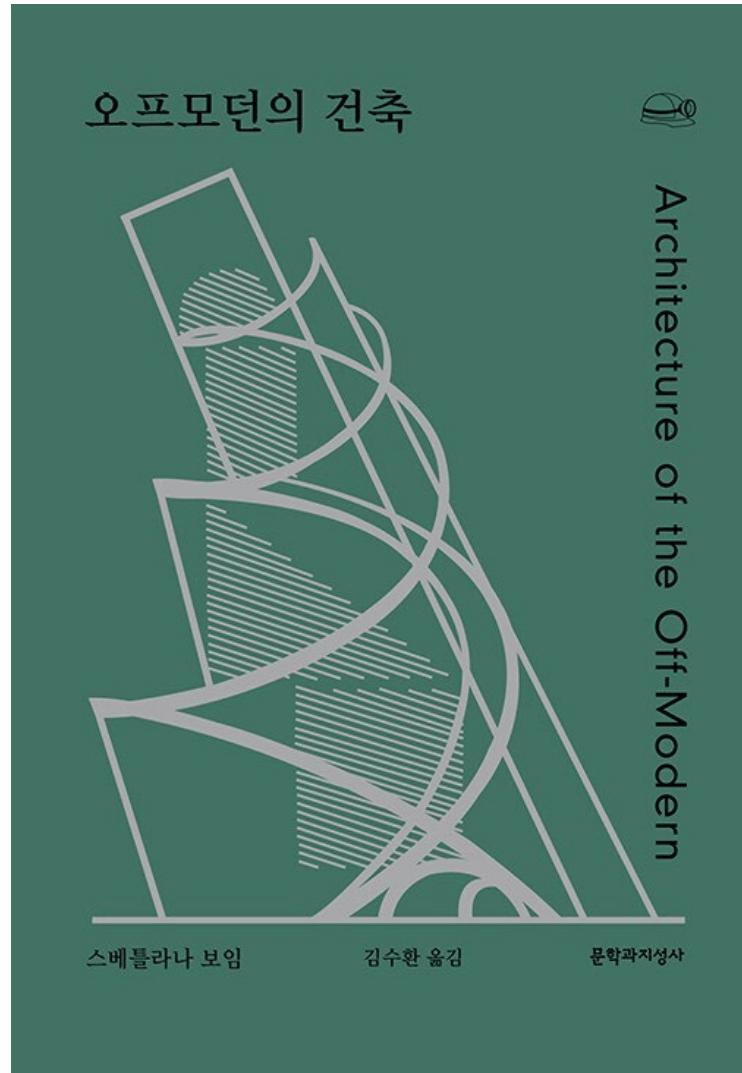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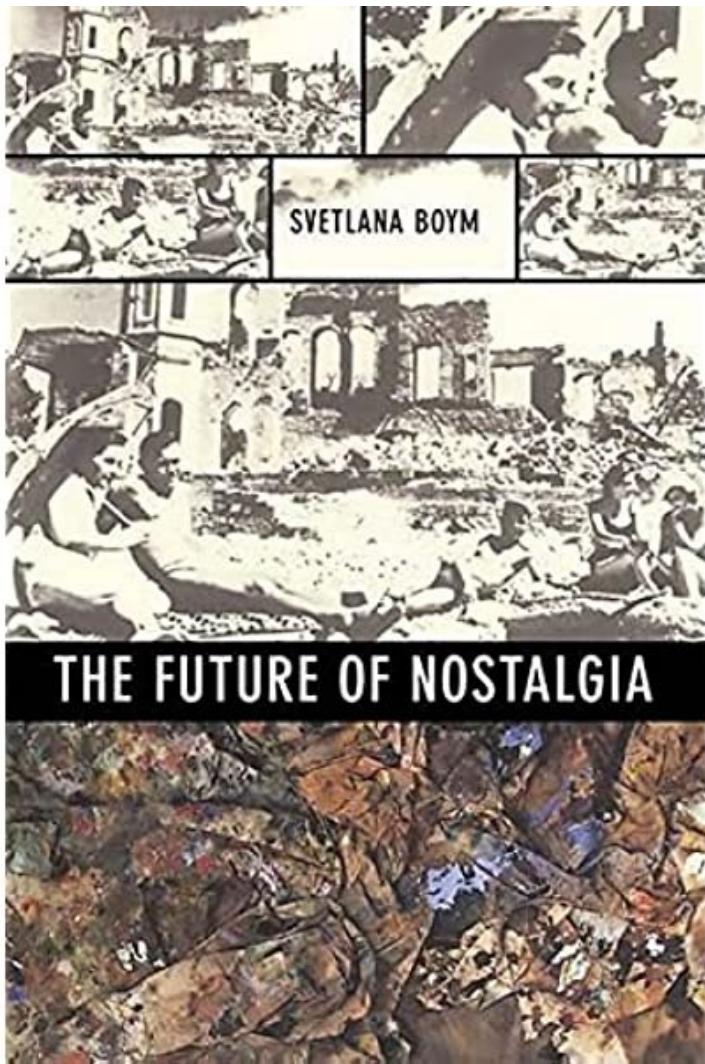
# 혁명의 낭마주이

김수환 지음

벤야민의 『모스크바 일기』와  
소비에트 아방가르드

문화  
과  
지  
성  
사







나의 소비에트 아방가르드 연구:

그것의 ‘기원적’ 성격에 대한 탐구.

어쩌면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담대한(bold)” 기획들.

버려진 가능성, 탈각된 노선들.

잃어버린 유토피아적 상상(력)의 복원을 위하여.





# FULLY AUTOMATED LUXURY COMMUNISM

— 21세기 공산주의 선언 —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

아론 바스타니 | Aaron Bastani 지음  
김민수·윤종은 옮김

아론 베스티니 Aaron Bastani 지음 김민수·윤종은 옮김

김민수·윤종은 옮김

황소걸음  
Slow & Steady

#ACCELERATE

» 가속주의자 독본 »

#가속화론  
» 로빈 퍩케이, 아르멘 아비네시안 역음  
기후전 옮김

서례

한국어판 엮은이 서문  
로빈 퍩케이 + 아르멘 아비네시안 → 서문

6  
13

1부 → 예견

칼 험스 → 기계에 관한 단상  
세운영 배틀러 → 기계의 책  
니콜라이는 표도로프 → 공동과업  
소스타인 베블런 → 기계 과정, 그리고 영리 기업의 자연적 쇠퇴

65  
79  
94  
101

2부 →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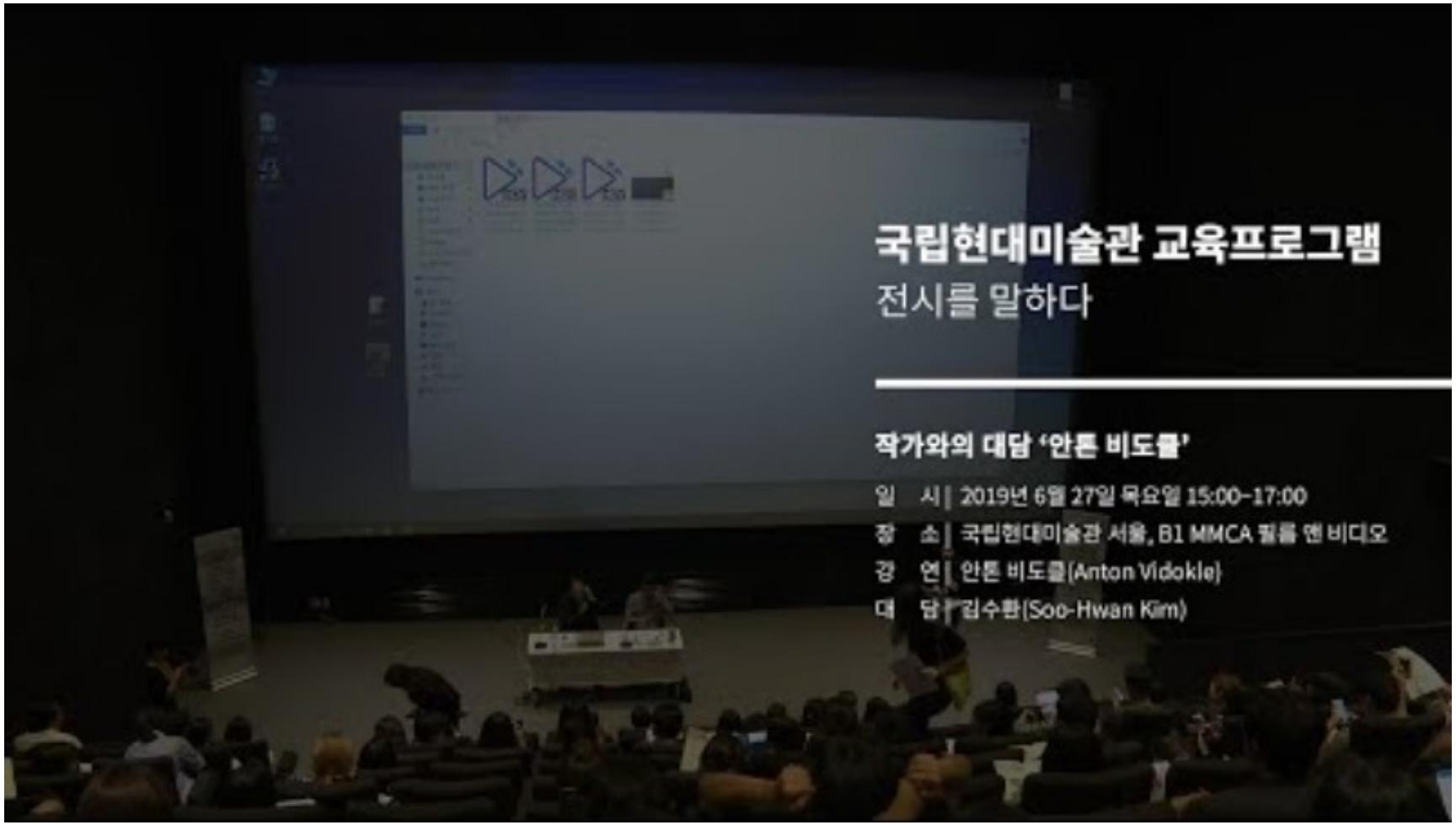
솔라메스 파이어스톤 → 문화사의 두 가지 양식  
자크 카마트 →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쇠퇴인가 아니면 인류의 쇠퇴인가?  
질 들뢰즈 + 블리스 과타리 → 문명 자본주의의 기계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 경상자 자본주의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 모든 정치경제는 라비도 경제이다  
질 러포페츠키 → 반복의 권력  
I.G. 펠러드 → 모든 종류의 퍽션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 욕망학명

115  
136  
151  
165  
212  
225  
236  
241

3부 → 사이버 문학

닉 겔드 → 화로들  
이혜연 해밀턴 그랜트 → 2019년 로스엔젤레스: 민주병증과 이중발생  
세이디 플렌트 + 닉 겔드 → 사이버포지티브  
CCRU → 사이버네틱스 문학  
CCRU → 고집기계들

249  
273  
300  
310  
315



국립현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전시를 말하다

---

작가와의 대담 ‘안톤 비도클’

일 시 |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15:00-17:00

장 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B1 MMCA 필름 면 비디오

강 연 | 안톤 비도클(Anton Vidokle)

대 담 | 김수환(Soo-Hwan Kim)

slavoj

슬라보예 지젝 지음 | 강우성 옮김

잉여향유  
혹은 왜 우리는 억압을 즐기는가?

Surplus

타이분법적 차이  
정신분석학, 정치학, 철학

Žižek

균열은 어디에 있나?  
마르크스, 자본주의, 생태학

잉여향유

당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



Enjoymer

- “이것은 소위 가속주의, 즉 자본주의가 촉발하는 기술 혁신의 도움으로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가속’하고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그렇다. 원칙적으로 자본주의의 종말은 가속화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특히 일부 제3세계 국가에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핵심 역할이 소위 ‘저항의 현장’, 즉 사회적 연대가 더 강한 전근대적 전통적 삶의 형태가 있는 지역 지대들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대중적 견해는 꽤 막힌 생각이다. (아프가니스탄의 탈 레반이야말로 분명히 그러한 저항의 현장이다!)
-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지금, 사회주의의 순간이 도사린 채 때가 포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WSB와 반대로 향하는 경향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머스크의 투자 알고리즘이라는 아이디어다. 이 아이디어는 이미 미국의 두 젊은 프로그래머가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월스트리트의 대형거래상들보다 주식 거래 행위, 즉 언제 무엇을 사고팔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작업을 더 잘 해내고 있다. 따라서 주식 거래의 통일성은 (개인만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수행하는) 객관적인 알고리즘과 규칙을 어기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조작으로 작동하는 주관적인 도박이라는 두 가지 극단으로 나뉜다.” (127쪽)



<https://en-movement.net/493>

# О ВАЛЕРИИ ПОДОРОГЕ: РАЗМЫШЛЯЯ О ГОДАХ НАШЕЙ ДРУЖБЫ...



**Сьюзан Бак-Морс** — профессор-эмеритус Корне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заслуженный профессор политической теории Центра аспирантуры Горо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ью-Йорка, США.

Заслуженный профессор, Ph.D. по европейской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истории (Университет Джоржтауна).

Email: sbm5@cornell.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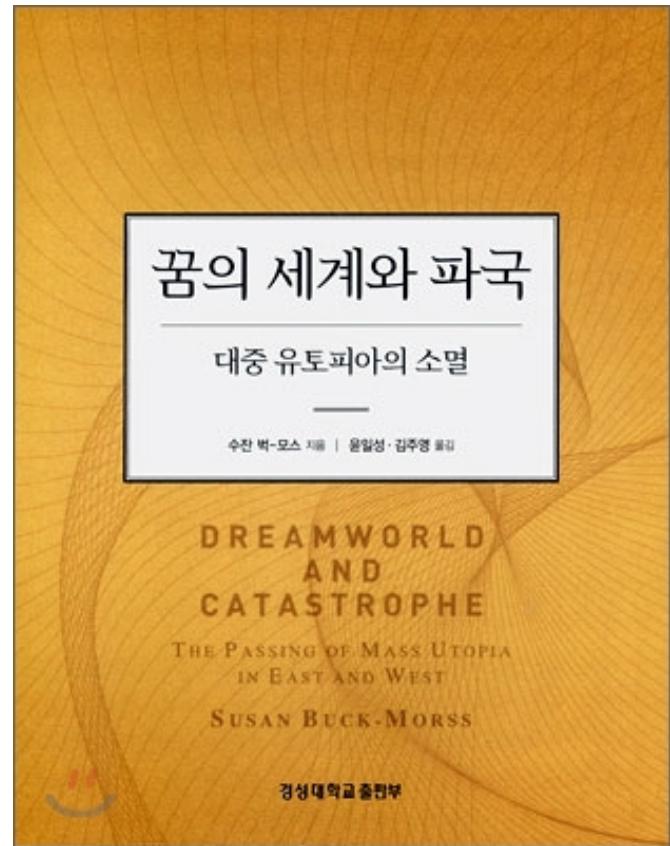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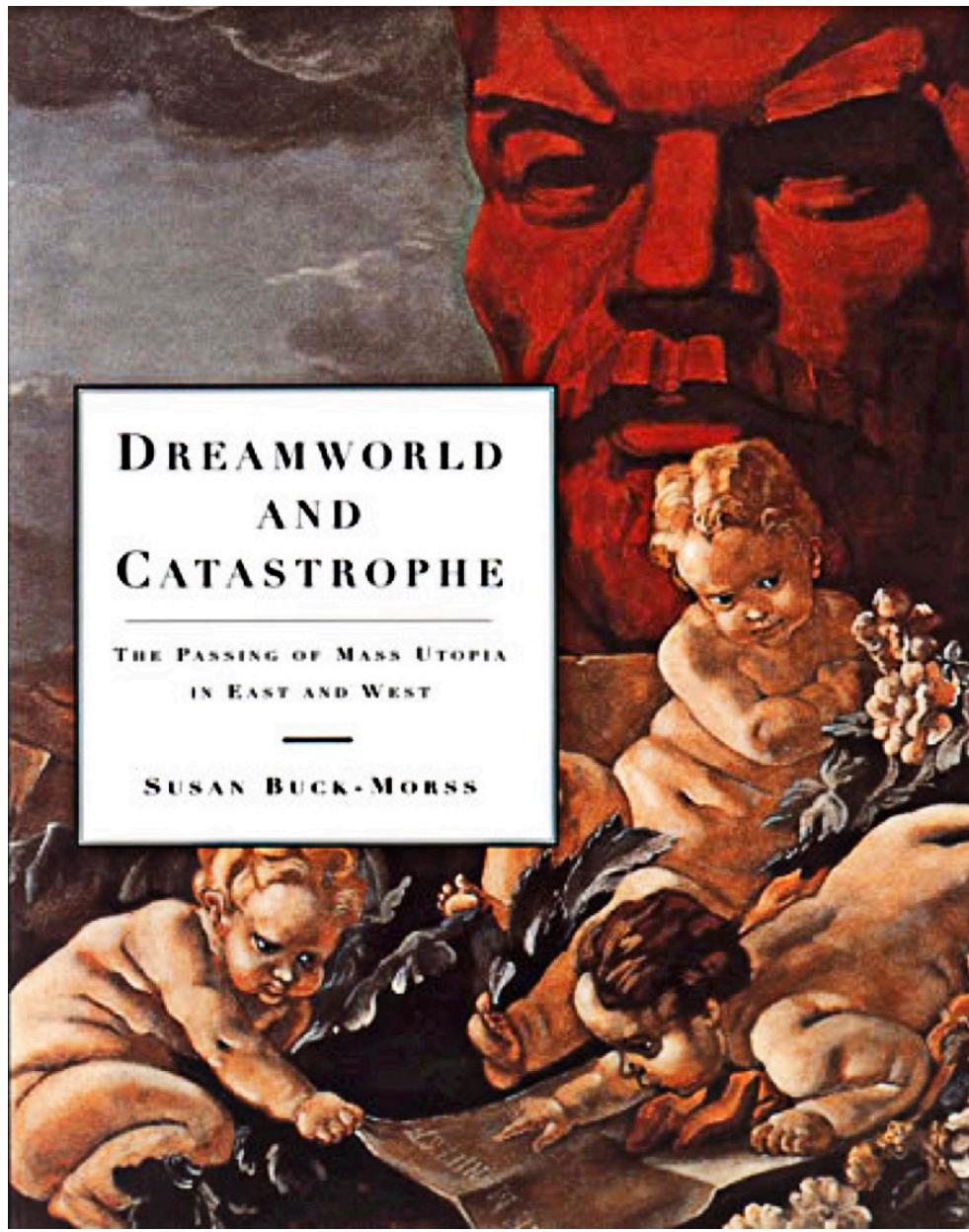
# ON VALERY PODOROGA: REFLECTING ON THE YEARS OF OUR FRIENDSHIP...

**Susan Buck-Morss**

Ph.D. in European Intellectual History from Georgetown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of Political Philosophy, CUNY Graduate Center and  
Jan Rock Zubrow Professor Emerita of Government, Cornell University.  
E-mail: sbm5@cornell.edu







Mimesis

*The Analytic  
Anthropology  
of Literature*

Valery  
Podoroga



Mimesis

*The Literature  
of the Soviet  
Avant-garde*

Valery  
Podoroga



2000~2024

# 21세기 최고의 책

기억할 책, 함께할 책

## — 김수환의 10권

809권의 책



### 21세기 최고의 책

책

21세기 최고의 책 : 기억할 책, 함께할 책

## 김수환의 10권

저자파일 ↗

신간알리미 ↗

체벤큐르

안드레이 플라토노프 지음, 윤영순 옮김 | 을유문  
화사 (2012)

발터 벤야민 : 화재경보

미카엘 뢰비 지음, 양창렬 옮김 | 난장 (2017)

1417년, 근대의 탄생

스티븐 그린블랫 지음, 이혜원 옮김 | 까치 (2013)



← 비 바르부르크 평전



다나카 준 지음, 김정복 옮김 | 휴먼아트 (2013)

건물 경비원이 창문유리를 부수고 있는 아이들을 쫓고 있다. 아이들은 도망가면서 생각한다 “나는 어째서 이 추운 도시에 살고 있는거지? 적도 섬의 종려나무 밑에 앉아있으면 좋으련만.” 바로 그때 쿠바에서 작가 헤밍웨이가 종려나무 밑에 앉아 생각했다. “나는 어째서 이 더위 속에 앉아있는 거지? 파리의 <로톤다La Rotonde> 카페엔 진짜 작가들이 와인을 마시며 예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텐데 말이야.” 바로 그때 <로톤다> 카페에서 장 폴 사르트르가 생각했다. “나는 어째서 여기 이부르주아 도시 파리에 앉아있는 걸까? 지금 사회주의 모스크바에선 진짜 작가 안드레이 플라토노프가 글을 쓰고 텐데....” 바로 그때 건물 경비원 플라토노프가 유리창을 깬 소년을 쫓아가며 생각했다. “잡히기만 해봐, 죽여버릴테다!”

- 1970년대 소비에트 아넥도트 중에서



---

# NEGATIVE REVOLUTION

---

Modern  
Political Subject  
and its  
Fate After  
the Cold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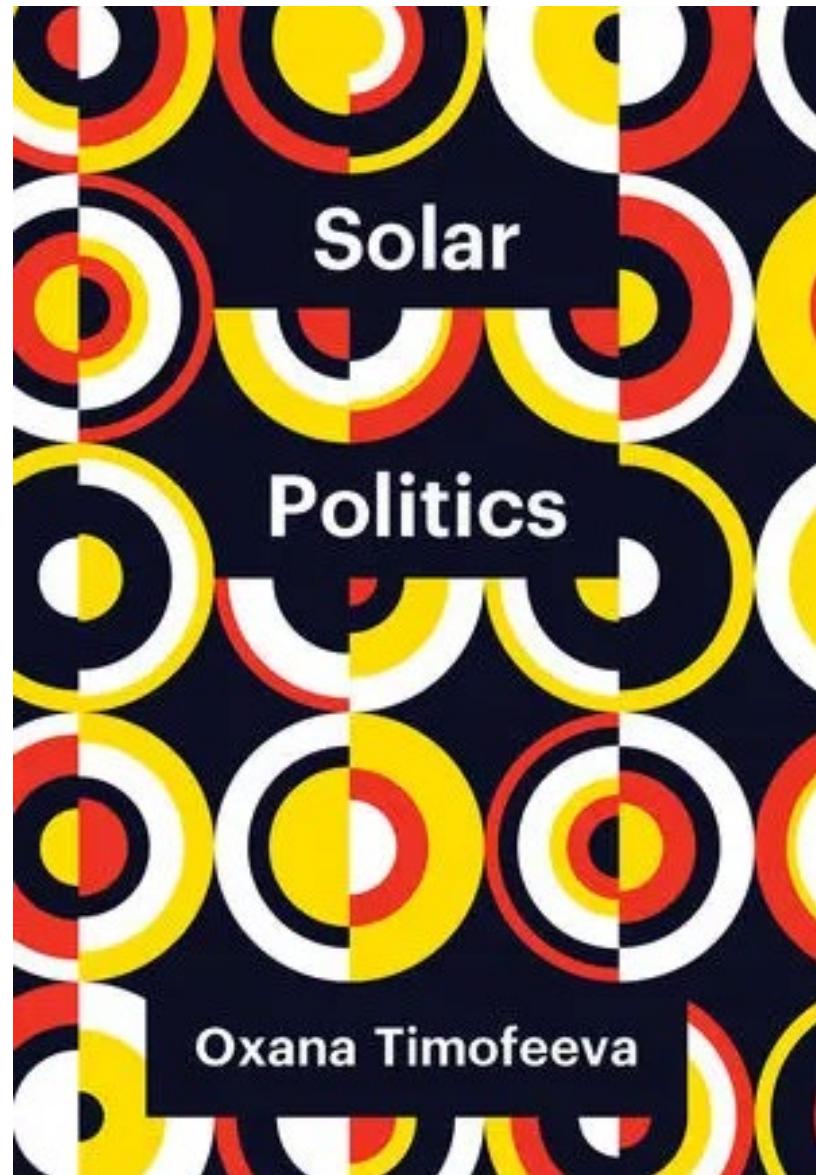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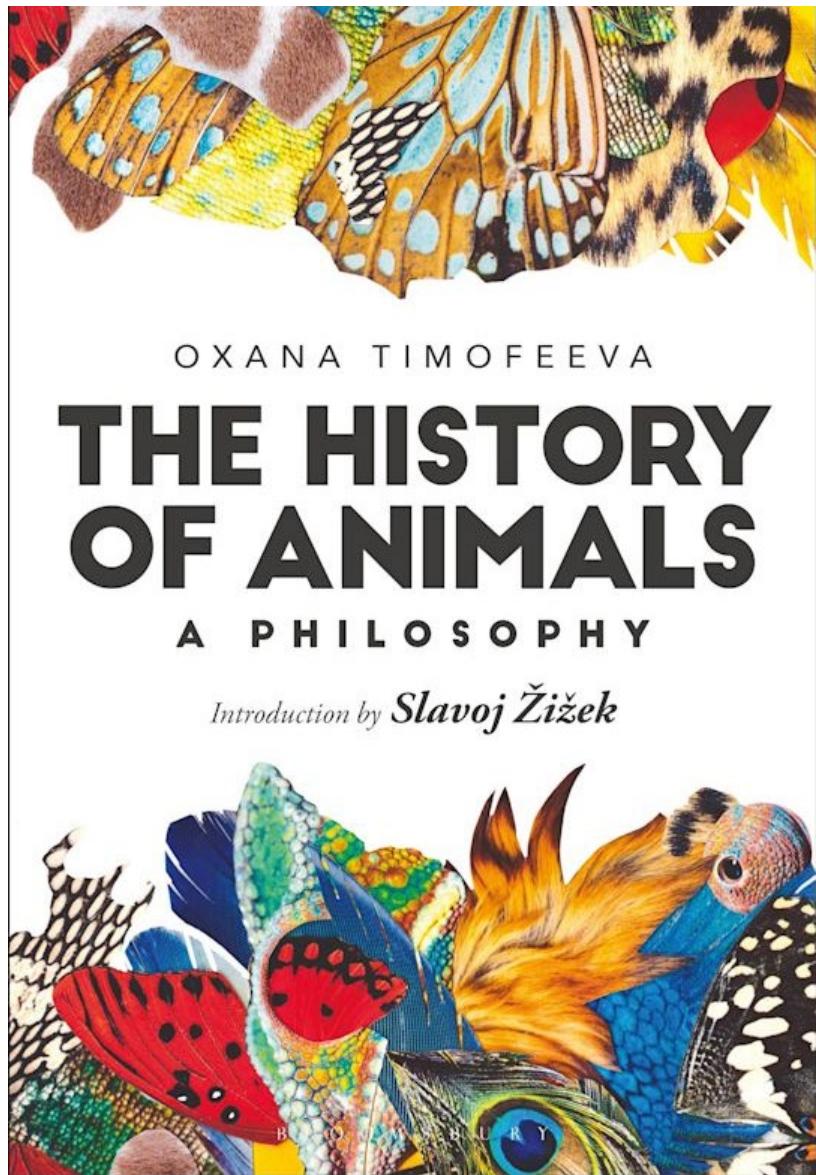
---

Artemy Magun

---

POLITICAL THEORY AND CONTEMPORARY PHILOSOPHY  
series editor Michael Marder

BLOOMSBURY



[Chто Delat – chtodelat.org](http://chtodelat.org)

ENGLISH TRANSLATION BY  
GEORGE GORELIK

A. Bogdanov

Essays in Tektology  
THE GENERAL SCIENCE  
OF ORGANIZATION

SECOND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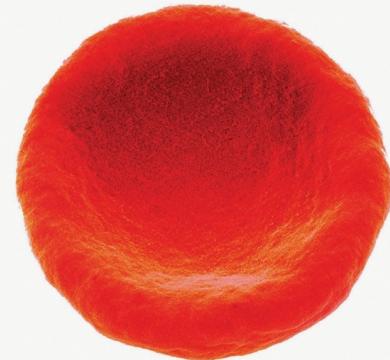


THE SYSTEMS INQUIRY SERIES  
Published by Intersystems Pub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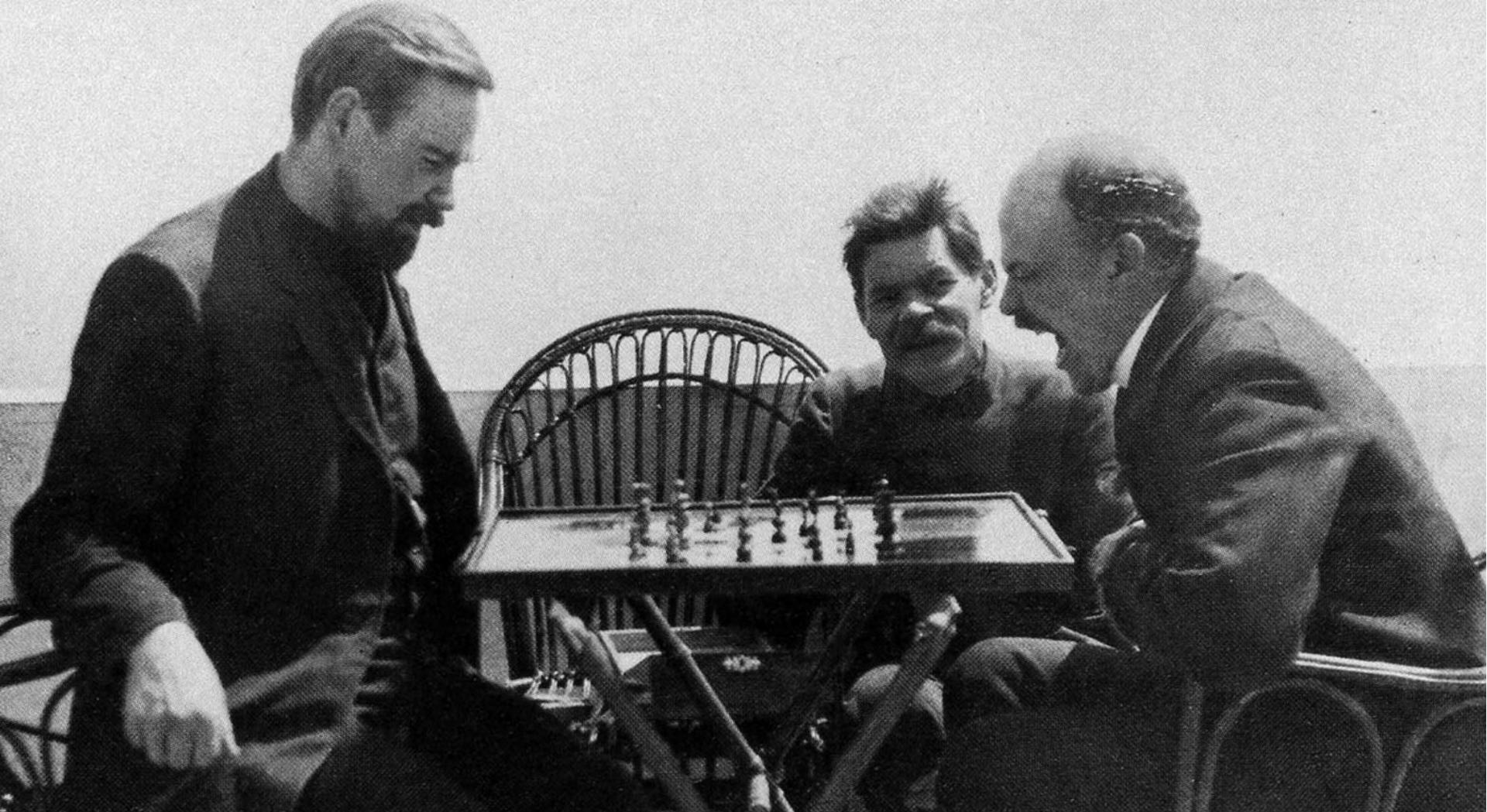
"Makes the case for a kind of political vision and action we need to recognize  
and enact. A true pleasure to read." — Kim Stanley Robinson

# MOLECULAR RED

THEORY FOR THE ANTHROPOCENE



**McKENZIE  
WARK**



Alexander Bogdanov Library – (Project of  
the Historical Materialism Series at Brill)

NLR 69, May-June 2011

https://newleftreview.org/issues/ii69

쿠팡! 인문지역학수업자료 2017 대학원 소비에... 유르착 번역 참고자... Favorites 2017 대학원 소비에... Watch this space: se... Daum > 다른 즐겨찾기

# NEW LEFT REVIEW

Catapulted from backwater status into financialized modernity, Spain is now the latest frontier of the Eurozone crisis. Emergence of the Iberian bubble economy, distortions of its growth pattern—and eruption of protests against a compliant political class.

ANDREI PLATONOV: On the First Socialist Tragedy  
Reflections from 1934 on man, technology and the dialectic of nature. Frailties and dangers of our advance within—and against—an unyielding environment.

Isidro López & Emmanuel Rodriguez  
*The Spanish Meltdown*

Robin Blackburn *Reclaiming Human Rights*  
John Grahm *Dissident Economics*

Andrei Platonov *Man and Nature*

Chin-tao Wu *Colombian Faultlines*

Benno Teschke *Reply to Balakrishnan*

Tariq Ali *Leaving Shabazz*

Peter Osborne *Philosophy à Deux*

Andrew Bacevich *The Road to Baghdad*

Allan Sekula & Noël Burch  
*Workers of All Seas, Unite*

**SUBSCRIBE**

"소련이 없는 세계는 의심할 여지없이 다음 세기 내에 스스로 파괴될 것이다."

“우리는 조약돌과 꿈, 전보신호를 함께 연결하는 사람  
을 비웃을 것이다.” (Bogdanov 1990, 391)

“우엉과 거지, 들판의 노래, 전기, 기관차와 경적, 지  
진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연결, 어떤 친족관계가 있  
습니다....풀을 키우는 것과 증기기관을 작동시키는  
것은 같은 종류의 역학을 필요로 합니다.”

(Platonov 2000)

손으로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자하르 파블로비치의 피는 손에서 머리로 흘렀고,  
그러면 곧 헛소리가 나오고 심장에서 우수에 찬 공포가 생겨날 정도로 모든 것  
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31쪽)

그는 고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계들이 바로 그에게는 사람이었고 그의 안에  
서 계속 감각과 사상, 욕망을 자극했기 때문이다(63쪽)

이제 자하르 파블로비치는 기계를 사랑하기보다는 가련하게 여겼으며, 심지어  
기관차고에서 기관차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89쪽)

자하르 파블로비치가 그 안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았던 따스한 안개는 이제  
깨끗한 바람에 의해 사라져 버렸고, 지금 그 앞에는 기계의 도움에 대한 믿음으  
로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고, 벌거벗은 채 살아가는 인간들의 연약하고 고독한 삶  
이 열렸다. (77쪽)

이곳에는 말입니다. 표도르 표도로비치.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가 대오를 정비하기 전에는 그들을 조직할 수 없습니다. 나도 이전에는 혁명이 기관차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런건 아닙니다 (530쪽)

우리는 쓸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노동하고 있네 (600쪽)

참새들은 이곳에 남아 추위와 인간들의 가난을 함께 나누었다. 이들은 자신의 쓰디쓴 낱알을 부리로 쪼아 먹는 진정한 프롤레타리아의 새인 것이다 (...) 차가운 아침에 참새는 곡식 알갱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모르는 희망에 의해서 몸을 데울 것이다. 코푼킨 역시 빵이나 행복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희망으로 살아갔다. (266쪽)

체르푸니는 우엉을 쓰다듬었다. 이것도 공산주의를 원하고 있다. 스텝에 피는 잡초 밭은 살아 있는 식물들의 우정이다(...)프롤레타리아처럼 삶의 더위와 눈의 죽음을 견뎌 낸, 벼려진 풀들이 거리마다 자라도록 하라. (390쪽)

우리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소. 고프네르 동지. 이전에는 착취자들이 자기 그늘로 태양을 가렸지만, 우리에게는 착취자가 없고, 태양이 노동을 하고 있소! (508쪽)

“나도 그 사람과 똑같아” 사샤는 스스로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오래된 울타리를 바라보면서 그는 진심에서 우러난 목소리로 생각했다. ‘홀로 서 있구나.’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그도 어딘가에 홀로 서 있었다. 가을에 덧문이 슬픈 듯이 삐걱거릴 때면, 사샤도 저녁마다 집에 앉아 있기가 우울해졌으며, 덧문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느꼈다. ‘그들 역시 우울하구나!’ 그리고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았다. (82쪽)

드바노프는 태양의 말 없는 우정이, 그리고 태양이 빛으로 대지를 위로해 주는 것  
이 마음에 들었다 (125쪽)

비록 삶의 굳건하고 영원한 의미를 공식화할 능력은 그 누구도 없지만, 우정 안에  
서, 그리고 헤어질 수 없는 동지가 존재하는 곳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삶의 불행  
이 서로를 안고 있는 고통 받는 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고 잘게 나뉘어 있을 때, 그  
영원한 의미에 대해 잊게 되는 것이다 (391쪽)

우리는 단지 동등한 가난 속에서만 동지일 수 있소 (279쪽)

감사합니다!